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48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445 (예수님 따르기로)

제 1독서 | 코헬렛 1,2; 2,21-23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그 모든 노고와 노심으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화답송 |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좌)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우)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좌)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우)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 2독서 | 콜로새서 3,1-5,9-11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2,13-21

영성체 후 묵상 |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합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Today's Gospel (Luke 11,1-13)

그때에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는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Someone in the crowd said to Jesus, "Teacher, tell my brother to share the inheritance with me." He replied to him, "Friend, who appointed me as your judge and arbitrator?" Then he said to the crowd, "Take care to guard against all greed, for though one may be rich, one's life does not consist of possessions."

Then he told them a parable. "There was a rich man whose land produced a bountiful harvest. He asked himself, 'What shall I do, for I do not have space to store my harvest?' And he said, 'This is what I shall do: I sha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larger ones. There I shall store all my grain and other goods and I shall say to myself, "Now as for you, you have so many good things stored up for many years, rest, eat, drink, be mer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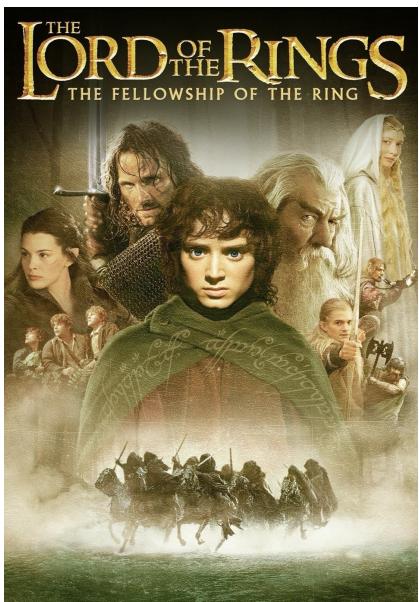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of you; and the things you have prepared, to whom will they belong?' Thus will it be for all who store up treasure for themselves but are not rich in what matters to God."

<오늘의 복음과 연결되는 성경 구절- 1티모테오 6,7-12; 17-19>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 대신에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현세에서 부자로 사는 이들에게는 오만해지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또 안전하지 못한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어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라고 지시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고 선행으로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미래를 위하여 훌륭한 기초가 되는 보물을 쌓아, 참생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과 영성의 길



<J.R.R. Tolkien's Letter 142 중에서 인용>

"The Lord of the Rings is of course a fundamentally religious and Catholic work; unconsciously so at first, but consciously in the revision. That is why I have not put in, or have cut out, practically all references to anything like 'religion,' to cults or practices, in the imaginary world. For the religious element is absorbed into the story and the symbolism. However that is very clumsily put, and sounds more self-important than I feel. For as a matter of fact, I have consciously planned very little; and should chiefly be grateful for having been brought up (since I was eight) in a Faith that has nourished me and taught me all the little that I know."

“반지의 제왕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고 가톨릭적인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랬지만, 개정 과정에서는 의식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 안에 ‘종교’나 의식, 행위와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삽입하지 않거나 모두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요소가 이야기와 상징 속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쓰면 너무 거창해 보일 수도 있는 걸 알지만, 실제로는 거의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조금의 지식을 어릴 적부터 나를 길러주고, 가르쳐준 신앙에 감사할 뿐입니다.”

『반지의 제왕』은 판타지 소설 장르에서 가장 기념비적이며, 그 상상력과 주제에 있어 20세기의 문학작품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고전이라 평가할 만합니다. 『반지의 제왕』을 읽다 보면, 저자인 J.R.R. 톨킨이 자신의 저술 작업을 단순한 소설 창작이 아니라 '언어창조'이자 '신화창조'로 명명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보편적 세계관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으며 수많은 세부적 묘사들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화는 독자들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와 만나고 더욱 통합되고 고양된 존재로 성장해가는 보편적인 인생의 여정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러한 신화의 힘은 자기 자신과 민족, 세대 나아가 인류 공동체 전체의 사명에 대해 각성하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톨킨의 작품을 읽는 것은 오늘의 '탈신화화'된 시대에 신화의 힘을 다시 실감하는 체험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작품을 읽을 때 각별히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것은 상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길에 대해 확고하면서도 광대한 전망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반지의 제왕』은 명시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 등장하는 언어와 사건들이 '성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톨킨은 가톨릭 신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신화적 이야기 속에서 절묘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표현된 그리스도교적 영성을 위한 덕목들은 무척 많은데, 그중에서도 1부 '반지 원정대'(The Fellowship of the Ring)라는 제목에서 암시되는, 우애로서의 사랑과 연대를 이룩하기 위한 희망과 용기와 도전이라는 주제를 들고 싶습니다. 이 작품의 중심에는 주인공 호빗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는 신앙인 각자의 영적 여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절대반지를 없애기 위해 결성된 공동체가 시련 속에서 '깨어졌다'가 다시 '복원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 애덕으로 일치를 이루어내고자 일상 중에 고투하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내신 회칙인 『모든 형제들』의 핵심적 개념인 '사회적 우애'의 관점에서 『반지의 제왕』을 바라보는 것도 엉뚱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공지 사항

1. 여정 ‘시즌 4’ - 마지막 영적독서 모임

- 일시: 수요일 저녁 7시 (온라인 모임)

* 이번 주 수요일을 마지막으로 ‘시즌 4, 독서 나눔모임’이 마무리됩니다. 잠시 휴식 기간을 가진 후, 여정 ‘시즌 5’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4. 미니 액자 성물

지난 7월 스테파노 주교님과 함께한 평일 미사 후에 나누어드렸던 성물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하여, 30개 정도 추가 주문하였습니다. 아직 성물을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다음 주 미사 후(8월 10일), 주임신부에게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8월 식사 나눔 안내

손님 신부님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다음 주 주일 미사후에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이번 식사 나눔은 사목 회에서 기본 음식(밥, 고기, 음료)을 준비합니다. 신자 분들께서 가정당 한 접시씩 준비해 오신다면 더욱 풍성한 나눔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 성모 승천 대축일 한인 미사 안내

- 일시: 8월 15일(금), 저녁 7시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는 가톨릭 교회의 의무대축일 (Holy day of Obligation)입니다. 한인 미사 참례가 어려우신 분들께서 거주지 근처의 로컬 성당 미사를 참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의 말씀이며, 아들께서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 성 암브로시오



| 미사 참례자 수 |

7월 20일	유아·청소년: 19명	성인: 42명
7월 27일	유아·청소년: 17명	성인: 41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봉헌금 & 교무금 | (7월 26일 ~ 8월 1일)

봉헌금	\$ 203.15			
교무금	\$ 540			
구민식	권묘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전인철	정은영	주정자	최병건	허준

|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8월 3일)	요한반
다음주 (8월 10일)	루카반

| 기도 지향 |

- * 한영길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강백일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